

# 콜롬비아 '디지털 토양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 농진청이 이끌다

### 기술협력협의체 출범 이래 중남미 12개국 참여 기술 개발 고원지대의 12가지 특성 정보 분석 결과 웹 통해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T, 이하 콜파시) 사업을 통해 콜롬비아가 '디지털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콜파시는 중남미에 필요한 농업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주도해 설립한 기술협력협의체로 2014년 출범 이래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12개국에 참여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디지털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해 작물에 적합한 재배지를 선정하거나 적절한 비료 처방 등 과학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토양양분 관리 소홀 등으로 농업생산성이 낮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연구개발(R&D) 재원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콜파시는 2017년부터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7개국과 함께 '중남미 토양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에 콜롬비아에서 거둔 성과는 콜롬비아 최초의 디지털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이라카(IRAKA, 이하 이라카)'를 구축한 것이다. 이라카 구축으로 콜롬비아 고원지대(쿤디보야엔세, 1만6,000km<sup>2</sup>)의 12가지 토양특성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콜롬비아 농업인들이 인터넷(https://iraka.agrosavia.co/)을 통해 토양특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농경지를 비옥하게 관리하고 작물 생산량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콜롬비아 일부 지역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이라카는 앞으로 전국 단위 토양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양특성 이외에 기상환경 정보 등을 포함하는 통합환경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콜롬비아의 디지털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정리한 연구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인 카테나(CATENA, IF 4.3)에 게재되면서 과학적 성과 또한 크게 인정받았다.

콜롬비아 측 과제 책임자인 농축산 연구공사 구스타보 아라우호 연구원은 "이번 성과로 인해 콜롬비아와 중



한-말레이시아 농업 연구개발 강화

19일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화상으로 열린 '농진청-말레이시아 농업연구청 간 업무협약식'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공동·교차 연구를 통한 농업분야 연구개발 강화, 농업기술 관련 지식·정보 상호 교환, 과학기술 토론회 및 회의 참여, 공동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에 협력하게 된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19일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화상으로 열린 '농진청-말레이시아 농업연구청 간 업무협약식'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공동·교차 연구를 통한 농업분야 연구개발 강화, 농업기술 관련 지식·정보 상호 교환, 과학기술 토론회 및 회의 참여, 공동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에 협력하게 된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남미 토양환경정보시스템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자부하며, 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허태웅 청장은 "이번 콜파시 사업의 성과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례로 큰 의미를 지닌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간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통합형 공공 주택 보급 확대해야"

민주 김윤덕 의원, LH와 발전 방향 세미나 열어



최근 전세난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LH와 함께 공동 주최한 '초고령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 결합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부모님이 돌아 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이라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5년 뒤에 맞게 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진료비의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 중심 요양 서비스를 대체할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보급하게 될 공공임대주택에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형 공공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김 의원과 도시공간정책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약 7% 수준으로 유럽의 사회주택 평균 공급률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계층 혼합형, 품질 개선 지원 확대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행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때문에 취약계층의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공급 배가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한국서부발전 등은 19일 그린수소 밸류체인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새만금개발공사, 그린수소 밸류체인 사업화 공동연구 협력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와 새만금개발청, 한국서부발전(주), 현대차동력(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차증권(주), 엘지전자(주), 수소에너젠(주) (이하 '협력 당사자')은 19일 그린수소 밸류체인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력 당사자들은 '그린수소 밸류체인 사업(가칭)'을 통해 그린수소의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태양광 모듈, ESS설비 등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실

증사업을 통해 기술과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린수소 밸류체인 사업'을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해 저탄소·친환경 사회에 기여하고 관련 신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팔문 사장은 "새만금이 친환경에너지의 메카, 수소경제의 거점이 되는 미래를 상상한다"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농협 최대 매장에서 '전북농산물 통합 판촉'

도-전북농협, 22일까지 양재 하나로마트서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북 원예농산물 공동 브랜드 예담채 홍보 및 전북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1호이자 농협 최대 매장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전북농산물 통합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판촉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전북에서 생산된 무, 배추, 사과, 배, 포도, 고구마, 생강, 미나리, 토마토, 애호박, 심리향(十里香)쌀 등 17개 품목을 전단지 홍보와 타임세일, 매장 안내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산물 판촉브랜드 판로확대와 도내 농산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농협중앙회 김원철 이사,



전북농협은 전북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22일까지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통합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조갑장, 조곡법인대표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이처럼 전북농협이 전북도와 함께 전북농산물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더욱 강화한 결과, 지난 10월말 기준 13개 조합공동사업법인 원예농산물 판

매금액이 3,743억원으로 작년 3,306억 대비 437억(13.2%) 증가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전북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판촉행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골판지 사업 역량 강화 나섰다

전주페이퍼, 'TOP21' 프로젝트 본격 시행

전주페이퍼(대표이사 장만천)는 골판지사업 역량 강화와 발전사업 운영 최적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진행되는 운영 혁신활동인 'TOP21'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TOP21(Total Operational Performance 2021)'은 2021년도 전주페이퍼의 또 다른 변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전사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전주페이퍼는 5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제지 산업 환경 내에서 변신을 거듭해 왔으며, 2013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의 확장, 2018년도에는 지중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골판지 원지 생산을 시작했다.

이번 'TOP21' 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골판지 원지 생산역량을 강화해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주페이퍼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이번 'TOP21' 프로젝트는 지중 운영 및 생산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내 우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

축! 전주매일 창간

## 2020년 금강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토대를 이루겠습니다.

KFS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한전 군산지사, 노인복지관에 영화상 발열축적 카메라 지원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정관영)는 지난 18일 군산 금강노인복지관에 방역장비인 영화상 발열축적 카메라를 기증했다.

이날 군산지사의 영화상 카메라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의 방역강화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 무진장 농어촌공,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는 19일 장수군 장수를 노하리 봉감마을 인근 하천에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 10여명이 참석하여 농약병·페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신교준 지사장은 "앞으로도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기 전·후 농한기에 집중 추진해 해당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